

# “뱅크시 작품 무료 관람하세요”... 호텔업계, ‘아트캉스’ 활짝

**파라다이스시티 아트스페이스**  
뱅크시, 키스해링 작품 32점 공개

**포시즌스 호텔 서울**  
에바 알머슨 컬래버 작품 전시

**메이필드호텔 서울**  
필립 콜버트 야외 조각전 기획

호텔업계가 야외 또는 로비에 유명 예술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고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트캉스(아트+바캉스)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국제아트페어 ‘프리즈 서울(Frieze Seoul)’과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한국국제아트페어-키아프(KIAF Seoul)’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예술에 관심있는 관람객들과 아트 컬렉터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유명 호텔들은 내부에 예술 작품을 교체·전시하고 관련 식음 서비스를 선보였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 아트스페이스에서는 세계 3대 경매사인 소더비와 협업한 전시 ‘더브 인 파라다이스 뱅크시 앤 키스 해링’을 감상할 수 있다.

‘얼굴 없는 작가’로 잘 알려진 뱅크시



필립 콜버트 조각전 야외 아트리움

/메이필드호텔 서울

와 키스해링의 작품 32점을 11월 5일까지 무료 공개한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뱅크시의 300억원대 그림이 국내 최초 공개되기도 했다. 뱅크시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중인 ‘풍선 없는 소녀’도 만날 수 있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스페인 출신의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과 컬래버레이션했다. 호텔의 이름대로 ‘사계절(Four Seasons)’이라는 주제 아래 에바 알머슨의 생동감 넘치는 일상 속 표현들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아낸

작품을 11월 말까지 호텔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지하 1층 더마켓 키친과 2층 오울에도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오울에서는 미식가들이 이번 협업을 기념해 2종의 칵테일을 새롭게 선보여 숙박객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파르나스호텔이 운영하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10월31일까지 아일랜드 작가 미셸 하트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아트 칵테일 5종을 선보인다.

프리즈서울 관련 패키지를 위해 개발



뱅크시 작품 ‘풍선 없는 소녀’ /파라다이스시티

된 메뉴로 하트 작가의 작품관을 여실히 반영한다. 대표적으로 진도의 전통 홍주와 오미자, 라임주스의 조화로 탄생한 ‘로열 진도(Loyal Jindo)’, 향긋한 자스민과 달콤한 버무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티 칵테일 ‘Lay down your worries here(이곳에 당신의 근심걱정을 내려놓으세요)’이 있다. 아트 칵테일은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1층 ‘그랜드 로비 라운지&바’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개관 20주년을 맞은 메이필드호텔 서울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필립 콜버트의 대형 예술품을 내년 2월까지 야

외 정원 아트리움에 전시한다.

이번 야외 조각전의 타이틀은 ‘비욘드 더 필드(Beyond the Field)’로 부제는 ‘애니원 캔 두 애니씽(Anyone Can Do Anything)’이다.

필립 콜버트는 메가 팝아트 장르를 개척하며 차세대 앤디 워홀이라고 평가받는 영국의 컨템퍼러리 팝 아티스트다. 랍스터를 페르소나로 삼아 회화, 조각, 미디어아트, 메타버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상상하는 무엇이든 팝 아트로 표현해 내는 예술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메이필드호텔 서울의 아트리움에 전시되는 필립 콜버트의 대형 랍스터 조각품은 4가지로 각 작품의 높이만 2~3m에 달한다. 오는 23~24일 양일간은 필립 콜버트가 직접 참여하는 특별한 와인페어 ‘디오니소스×필립 콜버트’도 열린다.

호텔 측은 “과수원으로 시작해 서울 한복판에 도심 속 숲을 조성하며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와 희망을 안겨주고 싶어 호텔을 짓게 된 메이필드호텔의 철학과 변천사가 ‘애니원 캔 두 애니씽’이란 슬로건과 맞닿아 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신선성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퓨어시스템-에이디주’, EASI50 달성률 70%”

(습진중증도평가지수)

### 강스템바이오텍 기업설명회

2019년 임상 대비 10~20% 향상  
내년 하반기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아토피,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결과를 주제로 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대비 10~20% 향상률을 확인했다. EASI50이란 의약품 투여 후 피부염 증상이 50% 이상 개선된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강스템바이오텍 배양한 임상개발본부장은 “임상 3상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추후 포함될 환자 수 및 현재 데이터 추세를 고려했을 때 1년 시점에서 최대 70%까지 EASI50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 효능을 감안했을 때 임상 3상의 결과를 확인하는 시점인 12주차의 데이터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기

대된다”며 “특히 EASI75 달성률도 2018년 출시 이후 급격한 매출성장을 보이는 항체치료제 수준인 42%로 나타나 약물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내년 상반기 퓨어시스템-에이디주 임상 3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같은 해 하반기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2025년 상반기 내 품목허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배 본부장은 임상 1상 투약을 진행 중인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과 기술수출 계획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배 본부장은 “연내 1상 투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약물의 6개월간 안전성 및 MRI 기반 영상 데이터 판독을 통한 연골의 구조적 개선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동물시험에서 확보한 연골 조직 재생, 연골구 구조개선이 인체에서도 확인될 경우 2024년 내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왼쪽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SK디스커버리 최창원 부회장, 아나 브르나비치 세르비아 총리, 프론티어바이오파마 키렌 나이두 CEO가 지난 8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서 MOU를 체결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 SK바사, 세르비아 ‘백신 자국화’ 이끈다

백신 개발·생산 MOU 체결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세르비아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세르비아 백신 자국화를 돕는 데 나섰다.

지난 8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르비아 정부와 백신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바탕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세르비아 정부, 세르비아 대표 제약사 프론티어바이오파마는 올해 안에 세부적인 계약을 맺어 세르비아에 백신 생산 시설을 설립하고

사업화할 예정이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수준의 생산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기술이전 및 제품 상업화 ▲인력 양성 ▲R&D 지원 ▲팬데믹 대비 노하우 전수 등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 정부도 행정적 지원과 함께 향후 완성된 제품이 세르비아 내에 신속히 조달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은 “세르비아의 백신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더욱 많은 국가의 공중 보건 증진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수습기자 mlee236@

## 종근당건강-서울대, 건기식·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협력

기술교육 등 학술교류 본격화

종근당건강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차별화를 위해 서울대와 손을 잡았다.

종근당건강은 최근 서울대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와 ‘건강기능식품 소재 발굴과 마이크로바이옴 공동연구를 위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종근당건강은 유산균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발굴하고 아울러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공동 연구한다. 이를 위해 종근당건강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및 기술자문 실시 ▲연구시설과 장비

공유 ▲워크숍 ▲학술교류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호곤 종근당건강 대표는 “이번 서울대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와의 연구협약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비롯한 우수한 기능의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발굴해 차별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수습기자

### 동아쏘시오그룹

## ‘2023 CSR세미나’ 개최

동아쏘시오그룹의 13개 그룹사 CSR 담당자들이 사회적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7일 서울 대 한상공회소에서 ‘2023 CSR세미나’를 열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올해 4회

째를 맞이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와 고재성 같다 대표가 사회적 가치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는 세미나 현장을 방문해 “그룹이 갖고 있는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철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경영에 대해 고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수습기자